



“그리운 고향이 ‘새벽’ 연작 낳았다”

갤러리이디 개관기념 초대
강승희 작가와 관람객 만남
“작업의 뿌리 오현고 미술부
미술 통해 자유로운 사유를”

그는 40여 년 전 제주시 별도봉으로 청중들을 이끌었다. 틈이 생길 때면 학교 뒤편 별도봉에 오르는 한 소년이 그곳에 있다. 소년은 파도가 없는 날이면 호수처럼 잔잔했던 그 바다에서 미지의 세계를 꿈꿨다. 막상 섬을 벗어나 서울 생활을 이어갔을 땐 고향이 그리웠다. 그는 제주에서 눈뜨면 보이던 한라산의 회색 빛을 서울에 사는 동안엔 영영 못볼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고향이 다가왔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운동으로 동네를 달리던 날이었다.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시는 새벽녘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저 멀리 빌딩들이 그려내는 풍경에서 제주섬 가운데 서있던 한라산의 모습이 연상됐다. 판화 작업으로 ‘새벽’이 탄생한 배경이다. ‘새벽’ 연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엔 고향이 먼저 있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한라일보 사옥 1층 갤러리 이디(ED), 개관 기념 ‘제주, 제주 너머’ 초대전 강승희 작가(추계예술대 판화과 교수)가 관람객들과 만나며 풀어낸 이야기다.

이날 강 작가는 1시간여에 걸쳐 국내 미술시장의 흐름과 지난 시기의 작업 과정을 찬찬히 들려줬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진 해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그는 최루탄 냄새



지난 22일 한라일보 1층 갤러리이디에서 강승희 작가와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새가 캠퍼스에 사라질 날이 없었던 청년 시절을 지나 ‘다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오늘날 현대미술의 세계까지 안내했다.

특히 강 작가는 자신의 미술의 뿌리로 오현고등학교 미술부 시절을 꼽았다. 그는 마땅한 미술학원이 없었던 시절,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강광작가 등을 통해 어깨 너머로 ‘프로의 정신’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갈수록 테크닉이 세련되어지더라도 그 작업의 바탕엔 오현고 시절의 미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림을 통해 관람객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자유롭게 느꼈으면 합니다. ‘자유로운 사유’를 하나의 철학처럼 여기며 작업해 왔어요. 그 뿌리가 제주이고, 10대 시절의 미술부인 겁니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대학 4학년 때 판화수업을 들었고 이를 계기로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찍이 판화가로 이름을 얻었다. 동판화를 위주로

30년 넘게 이어온 판화는 한편으로 그에게 고된 노동이었다. 10년 전부터는 그림 작업을 조금씩 늘려갔고 지난해 서울 노화랑 개인전은 판화가 아닌 회화로 온전히 채웠다. 하지만 판화의 세계를 회화로 가져오는 데 안료 선택 등 어려움이 많았다. 작업의 뿌리를 계속 떠올렸고 바다 위 배들이 떠있는 ‘새벽-21802’ (2018)를 그리면서 비로소 작업이 풀리기 시작했다. 갤러리 이디에도 그 작품이 걸렸다.

그는 오랜만에 갖는 제주 전시에서 ‘어둡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검은색’을 수록화 같은 화면에 담아냈다. 작가는 그걸 “화산섬 제주 땅의 색깔”이라고 말했다. 갤러리에 펼쳐진 그의 작품을 본 어떤 이는 “치유가 되는 느낌”이란 소감을 꺼낸 적이 있다. 지금 제주에게 필요한 건 그 검은색과 같은 소박함인지 모른다. 강 작가는 이날 “한라산을 보면서 자란 회색에 대한 감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100일 만에 문 여는 도립·현대미술관

내달 4일부터 사전예약제

100일 만에 전시실 문을 여는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인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은 사전예약제와 함께 6월 4일부터 미술관을 재개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예약포털,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 제주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이

용하면 된다. 사전 예약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성명, 입장 일시,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다.

첫 입장 가능시간은 9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이고, 마지막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로 1일 총 8회 운영된다. 매회 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관람시 안전거리 2미터 이상 유지하기 등도 적용된다. 사전예약제 운영 기간에는 전시해설

이 중단된다. 매주 월요일은 종전처럼 휴관한다.

도립미술관에서는 ‘흔디, 봄’과 ‘화가의 시선: 유유자적’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각별한, 특별한, 특별한’ 전과 ‘산, 산, 산’ 전시가 진행된다. 최정주 도립미술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사전예약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사전예약제를 유지할 계획이므로 관람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책 읽는 도시, 품격있는 제주 만들자”

대한민국 독서대전 선포식

인생책장 3명 추천도서 출발
독서릴레이 올해의 책 전달
선정 작가 북콘서트도 진행

“자연과 인문 분야에 이어 책을 통한 대한민국 세계의 보물섬으로 거듭나는 행보의 첫발,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제주 개최와 책의 도시 제주를 선포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고희범 제주시장의 ‘힘찬 출발’ 선언에 올해로 7회째인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

지난 3월 계획한 자리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비로소 선포식을 치렀다.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최소 인원인 100여 명만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주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김철용 제주시 우당도서관장의 대한민국 독서대전 경과 보고, 책의 도시 제주시 선포, 상징기 전달, ‘인생 책장’ 안내, 올해의 책 전달, 후원 기관과 단체 소개, 올해의 책 중 하나인 ‘선량한 차별주의자’ 일부 대독 낭독,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특별 공연, 올해의 책 북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고희범 시장은 독서대전 유치 배경에 대해 문제부의 2019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제주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 인천과 더불어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공공도서관 이용률, 독서



제주 대한민국 독서대전 선포식에서 시민대표 10명에게 ‘올해의 책’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당도서관 제공

프로그램 참여율 등 5대 독서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돈 것이다. 고 시장은 “독서 지표는 물론 2017년 기준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가장 많고 동네 책방도 200여개 된다. 제주독서문화대전을 꾸준히 치르는 등 역량을 인정받아 삼수 끝에 작년에 선정되었다”며 “책을 읽는 품격있는 시민이 품격있는 제주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생 책장’은 고희범 시장,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우당도서관 운영위원장인 문종태 제주도원의 첫 주자로 나섰다. 이들은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조원재의 ‘방구석 미술관’, 박재희의 ‘3분 고전’을 각각 추천하며 제주도 지도모양 책장에 책을 꽂았다. 인생책장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9월 4일 개막 전까지

추천을 받아 한 권씩 책장을 채워간 뒤 독서대전 한마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독서대전을 앞두고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발표한 ‘올해의 책’은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시민대표 10명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 국민 독서릴레이 형식으로 읽는다. 올해의 책은 성인 부문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청소년 부문 황영미의 ‘체리세우: 비밀글입니다’, 어린이 부문 이현의 ‘푸른사자 와니니’다. 3명의 작가들은 선포식 현장을 찾아 짧은 북콘서트도 가졌다.

제주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금 우리, 책’이 슬로건인 독서대전 사전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추후 별도 홈페이지를 가동할 예정으로 현재는 우당도서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올라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오페라인제주 현선경 영입

사단법인 오페라인제주(이사장 강웅덕)는 “오농회 단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일 퇴임했다”며 “이에 오페라아카데미 총감독에 소프라노 현선경씨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오페라인제주 창립 당시부터 참여한 오농회씨는 이날 퇴임 행사에서 “오페라인제주가 앞으로 클래식음악을 주축으로 제주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해녀문화 창작 지원 19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한 2020년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에서 총 19건(지원액 2억7500만원)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모에는 우수기획형(커뮤니티형/장르융합형), 창작발표형 등 2개 유형에 33건이 접수됐다. 심의 결과 우수기획형은 커뮤니티형 1건과 장르융합형 5건, 창작발표형은 단체 3건과 개인 10건이 지원 대상 사업에 들었다. 결과는 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서귀포 시민서평단 모집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온라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서귀포 시민서평단’을 이달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시민서평단으로 선발되면 서평이론과 글쓰기 교육을 받고, 작성된 서평은 지역 신문과 도서관 소셜미디어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귀포에 거주하며 월 1~2회 서평 제출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10명을 선발한다. 문의 760-3725.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해주세요.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나눔에너지**
제주에너지공사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3년 연속 선정

2020년 5월 29일까지 설치 신청 고객 모집 중!

3kW 설치 자부담금 220만5천원 + 하자보증 8년 + 48시간내 A/S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하자 이행 기간 5년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기본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고급형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17만원 부터~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나눔에너지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745-0420 FAX 070-8812-0420